

**이야기 다시 말하기 : 자녀 양육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

Retelling the Story :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Storytelling for Christian Parenting  
이부형(목사, VIEW 재학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및 방법

**II. Storytelling의 중요성**

1. Storytelling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2. Storytelling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우리 삶을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3. Storytelling은 자녀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III. 자녀 양육에서의 Storytelling의 성경적 모델**

1. Storytelling의 성경적 모델
2. 성경적 storytelling 모델의 강조점

**IV. 자녀 양육에서의 성경적 Storytelling의 내용과 방법**

1. 자녀 양육에서의 storytelling의 내용
2. 자녀 양육에서의 storytelling의 방법

**V. 결론**

## Abstract

### **Retelling the Story: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Storytelling for Christian Parenting**

Boo-Hyung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all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Bible storytelling for Christian parenting. To do this task, first of all, I describe why storytelling is of great importance in terms of its origin, contents, and method. Storytelling does not only have its origin in the revelation of the triune God, but it also functions as an effective way to introduce children to a Christian worldview, biblically based values, and our Christian heritage through Bible stories. Then, I attempt to depict a model of storytelling derived from the Bible in order to emphasize the covenant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 parents. Storytelling is defined as retelling the story of God. Just as many prophets should retell the story of God ('Telling') to covenant people, so Christian parents must retell the Bible to their children so that they might comprehend the covenant relationship, believe the covenant promises, obey the covenant demands and receive the covenant blessings. Furthermore, I contend what contents should be included to educate children in the fear of the Lord. They should include all that God has done in the past, does in the present and will do in the future too. Finally, I suggest how to retell the story by focusing on the nature of the narrative in the Bible, adding some guides.

**Key Words :** 이야기, storytelling, 자녀 양육, 언약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다(시127:3). 동시에 그것은 부모로서 책임있는 응답을 수반한다(잠22:6). 성경은 자녀 양육을 위한 권위와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위임하셨다(엡6:4).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러한 언약적 책임을 도외시키고 제 3자에게 내어줄 수 없으며 주어서도 안 된다(신6:4-9). 부모의 주된 의무는 기독교적 양육을 통하여 자녀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성숙시키는 것이다(롬11:36).<sup>1)</sup>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곧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고, 언약의 약속들을 믿고, 언약의 요구들을 순종하고, 언약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데 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sup>2)</sup>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언약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섬김을 위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로서의 언약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부모는 무엇으로 어떻게 '여호와와 주신 기업'(시127:3)을 교육할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sup>3)</sup>

또한 자녀를 낳으면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sup>4)</sup> 특히 기독교인 부모의 양육이 모두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다.<sup>5)</sup>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세속적 가치와 방법을 전수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기독교적'이지 않을뿐더러 우상숭배적이다.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된 부모가 성경적 세계관에 '흠뻑 젖어서' 양육할 때 비로소 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기독교적 양육이 성경에서 출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딤후 3:16)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효과적인 기독교적 교육의 틀을 제공해 준다.<sup>6)</sup> 이처럼 성경에서 비롯된 가치와 궁극적 신념의 틀은 우리 자신뿐 아

1) Norman E. Harper,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기독교교육>,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6

2) James Visscher, <I Belong: A Course of Stud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 The Teacher's Lesson Book > (Winnipeg, Premier Publishing, 1988), 115-116.

3) Harper, 63.

4) 박진경,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부산: CUP, 1995), 6.

5)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세계와 삶에 대한 성경적 조망> (서울: CUP, 1999), 44. 양승훈 교수는 Christian 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인'이라는 명사적 의미와 '기독교적'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성경의 세계관을 채택하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6) Harro Van Brummelen,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nded.>

나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삶을 조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아이의 본성에 맞아야 한다. 하퍼는 잠언22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한다: "그의 방식에 따라 아이를 키우라 (Train up a child according to his way)."<sup>7)</sup> 다시 말해 아이의 발달 정도에 맞고 그의 특성에 일치하는 '눈높이' 방식을 취하라는 것이다. 하나님도 친히 그 자녀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므로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취하셨다.<sup>8)</sup>

아무리 '진지한' 삶의 문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그 방식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경이와 기쁨을 맛보고 즐기는 일종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sup>9)</sup> 따라서 자녀들의 방식에 맞고 즐겁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을 찾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하나로써 이야기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sup>10)</sup> 수동적이고 상호작용이 배제된 텔레비전의 이야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 오락과 인터넷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가정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랑방이 아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쁜 부모들에게 storytelling은 많은 가정에서 더 이상 의미있는 경험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삶은 어떤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스도인과 그 자녀에게는 더욱 그렇다. 만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형성해 주는 일차적인 요소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전체 삶은 우리 시대와 문화의 우상 숭배적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다시 찾을 때이다.

Storytelling과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는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는 동화구연(storytelling) 활동이 유아의 학습 발달 및 생활 습관 형성에 미

(Colorado Springs: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2002), 2.

7) Harper, 65.

8) Charles H. Kraft,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revised edition> (Maryknoll: Orbis Books, 1999), 15.

9) Gloria G. Stronks and Doug Blomberg, <A Vision with a Task: Christian Schooling for Responsive Discipleship>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200.

10) David Booth and Bob Barton, <Story Works: How Teachers Can Use Shared Stories in the New Curriculum> (Markham: Pembroke Publishers, 2000), 22.

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sup>11)</sup> 후자의 경우는 영어 학습과 동화구연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sup>12)</sup> 두 경우 모두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같은 전문 교육 기관에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위한 실험 연구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성경 이야기(Bible storytelling)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방은정의 Bible storytelling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술적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연구와 성경 이야기의 효과적 교수 방법에 관한 실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sup>13)</sup>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경 이야기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야기식 설교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sup>14)</sup> 하지만 이러한 연

- 
- 11) 하미숙,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동화구연과 동화활동이 유아의 동화 기억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Vol.5, No.2 (1996), 161-178; 김춘화, "'동화듣고 전달하기'가 유아의 어휘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Vol.9, No.2 (2000), 43-59; 장현주, "동화구연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Vol.9, No.1 (2000), 83-93; 하경화, "동화듣기 경험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Vol.11, No.1 (2002), 161-172; 선우윤미, "유치원에서의 영어지도를 위한 Storytelling 활용 방안," <English Linguistic Science> Vol.4, No.1 (2000); 신효영, 방은령,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유치원 어린이의 말하기 학습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Vol.5, No.2 (2002), 45-63.
- 12) 이재희,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의 이야기 분석과 활용,"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Vol.4, No.1 (1996), 389-404; 홍경선, "초등 영어 이야기 지도 방법," <초등교육연구> Vol.4, No.1 (1999), 105-124; 신귀옥, "초등학교에서 Storytelling을 활용한 영어지도," <English Linguistic Science> Vol.5, No.1 (2000); 선우윤미, "영어동화구연 기법과 시청각 교수매체 기법이 아동들의 흥미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ELS> Vol.6, No.1 (2000); 유승혜, "영어동화구연 기법이 초등영어 듣기 학습에 미치는 효과 연구," <ELS> Vol.6, No.1 (2000); 오혜준,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영어동화구연 기법과 다시 말하기 기법이 초등학생들의 내용 이해와 흥미에 미치는 효과," <ELS> Vol.7, No.1 (2001); 강명옥, "영어동화를 활용한 역할놀이 수업모형 개발: 초등학교 4학년 재량활동을 중심으로," <ELS> Vol.8, No.1 (2002).
- 13) 방은정, "유 원감의 성경이야기 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2-3. 여기에서 소개된 성경이야기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로는 곽해신, "유아의 도덕성 증진을 위한 성경이야기의 구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이한희, "성경이야기에 포함된 유아의 도덕적 갈등 상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박희경, "성경이야기를 통한 사회조망훈련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박홍숙, "유아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성경 관련 그림책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등이 있으며,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김화수, "교수방법에 따른 유아의 내용이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이영애, "극화활동이 5,6세 유아의 성경지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황영란, "교회학교 유치부의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등이 있다.
- 14) 안성근, "이야기체 설교의 이론과 방법론 연구,"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강환근, "이야기식 설교의 성서적 근거와 그 모델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이정우, "이야기식 설교의 성경적 기초와 그 이론에 관한 연구," 합동신학

구들은 유아 전문 교육기관의 교사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설교자의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신학적 작업에 치중하고 있어서 실제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성경 이야기를 논의한 연구가 부족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야기 전달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성, 그리고 자녀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하여 일차적인 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성경에 나타난 storytelling의 모델을 찾고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내용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알아보는데 있다.

##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성경의 storytelling이 자녀 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 주느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문헌 연구를 통해 먼저 storytelling이 갖는 중요성을 논의하고, 다음으로 성경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storytelling 모델을 찾아 제시한 후에, 이어서 storytelling 모델에 기초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storytelling의 내용과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 II. Storytelling의 중요성

Storytelling은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Storytelling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둘째, Storytelling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우리 삶을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Storytelling은 자녀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 1. Storytelling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하

---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의신, "이야기식 설교의 실제적인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조신영, "21세기의 설교의 한 대안으로서 이야기 설교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진호석, "이야기식 설교 형태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완벽한 권고"를 명시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다.<sup>15)</sup> 그러한 성경이 대부분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토마스 롱은 이야기가 종교적 진리나 교리를 전달하는데 부적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한다.<sup>16)</sup> 그것은 바로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sup>17)</sup>

우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약의 역사(history)는 그의 이야기(His story)로 가득하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인류의 이야기,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약속의 땅 이야기, 왕조 시대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포로와 귀환의 이야기 등과 같이 수 많은 이야기들 속에 가득하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한다(히1:1).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sup>18)</sup>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친히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주체로 묘사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 심지어 혹자는 인간을 "이야기를 말하는 동물"(storytelling animals)이라고 한다.<sup>19)</sup>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한다.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의 한 농부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가르친다(신 26:5-10). 여기서 그 농부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지 회상하고, 또 자신을 축복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여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를 말하는 인간은 곧 하나님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다. 역으로, 인간의 타락은 곧 이야기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하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곡시킨 것이며(창3;3), 아담 역시 교묘하게 이야기 하여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15) "성경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 참조.

[http://www.nazuni.pe.kr/theword/study/creeds/west\\_confession01.php](http://www.nazuni.pe.kr/theword/study/creeds/west_confession01.php).

16) Thomas G. Lon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66-67.

17) James Limburg, <Old Stories for a New Time> (Alanta: John Knox Press, 1983), 10.

18) Claus Westermann, <Elements of Old Testament Theology>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9.

19) Booth and Barton, 7.

전가시킨다(창3:12). 이후에 빚어지는 인간의 타락상은 많은 경우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꾸며내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진다.

게다가 **예수님도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셨다**.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게끔 이야기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분의 일은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하신 비유이다. 이러한 비유가 복음서에는 적어도 39가지 정도 이야기되고 있다.<sup>20)</sup> 예수님의 비유는 간결하고 사실적이며 듣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될 수 있었고, 다루어진 주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등과 같이 광범위한 것이었다.<sup>21)</sup> 이처럼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실 정도였다(마13:34).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이야기의 힘을 아셨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수님이 이야기로 진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의 방법을 좋아했고 그대로 따라서 기록한 것이다.<sup>22)</sup>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이야기의 중심이다. 이야기를 통해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합당한 삶을 경험하도록 초청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준다.<sup>23)</sup>

끝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도 이야기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는지를 말해준다(행1:8). 게다가 나머지 서신들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 역시 신약성경의 주요한 문학적 양식이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와츠낙은 "기독교는 이야기꾼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고,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청중을 모아 떡을 떼며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었다"고 말한다.<sup>24)</sup>

20) 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스타일>, 박경환, 서장국 공역 (서울: 디모데, 1995), 493.

21) Ibid., 507-517.

22) Bruce C. Salmon, <Storytelling in Preaching> (Nashville: Broadmann Press, 1988), 26-27; 강환근, "이야기식 설교의 성서적 근거와 그 모델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10에서 재인용.

23) David Rhoads, Joanna Dewey, and Donald Michie,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Second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2.

24) Robert Waznak, <Sunday after Sunday: Preaching the Homily all Story > (New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orytelling은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방법이며 교회의 역사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다. 요컨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야기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과 관련하여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 선언문은 이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교회와 함께 움직이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 지고 있으며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형성해 준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이야기해 준다.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to retell the story)은 곧 우리가 믿는 바를 선언하는 것이다."<sup>25)</sup>

2. Storytelling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우리 삶을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 세계관은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의 포괄적인 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나침반과 같이 삶을 인도하는 기능을 갖는다.<sup>26)</sup>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은 무엇에 의해 형성되는가? 그것은 주로 이야기에 의해 구성된다. 인간은 언어를 벗어나서 세계를 인식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는 형식은 대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sup>27)</sup> 가령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는다. 이러한 인식은 처음부터 명제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기 보다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이다. 설령 이러한 인식이 처음부터 명제로 그대로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명제는 대개 지적인 동의를 가져다 줄 뿐, 인격적 반응을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명제는 객관적 사실을 드러내 주는 반면, 이야기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고 실천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sup>28)</sup>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하

York: Paulist Press, 1983), 27; 이정우, "이야기식 설교의 성경적 기초와 그 이론에 관한 연구," 합동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10에서 재인용.

25) "A Declaration of Faith," <The Proposed Book of Confe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tlanta: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974), 145; Limburg, 7에서 재인용.

26) Albert M.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1992), 13-19.

27) 김기현, "명제 신학 vs. 이야기 신학: 명제에 대한 비판," <복음과 상황> 125 (2000, 5), 80-84.

나눔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도출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이 경험될 때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 세계를 나의 세계와 동일시하게 된다. 앞서 예시한 신명기 26장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이야기를 말하는 한 농부는 처음에 '그들'(하나님은 조상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결국 '나'(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옴)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그는 한편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말하고(retell), 그 사건과 자신을 연결시키며(related),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reflect)해 가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세계관이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점검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성경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거기서 체득된 인식과 고백을 따라 삶을 실천하고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형성해 주지 않게 되면 우리의 전체 삶은 우리 시대와 문화의 우상 숭배적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인간의 삶은 어떤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다.

3. Storytelling은 자녀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Storytelling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친히 명령하신 방법이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나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신 6:20-21, 표준새번역).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시하신 방법은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신 6:21-25).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언약 백성과 커뮤니케이션하

28) Ibid., 82-83.

29) Susan Schwartz and Maxine Bone, <Retelling, Relating, Reflecting: Beyond the 3 R's> (Toronto: Irwin Publishing, 1995), 28-31.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storytelling을 권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곧 우리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sup>30)</sup>

또한, **자녀들은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 보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귀를 쫓긋 세우고 동그랗게 반짝거리는 눈동자를 가지고 바짝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는 그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갈 것이다. 주크는 그러한 이유가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31)</sup> 또한 부스와 바톤은 아이들이 storytelling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다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sup>32)</sup> 게다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 기독교 가치에 따른 삶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sup>33)</sup> 이러한 설명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야기하는 존재(storytelling being)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을 더욱 확증해 준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적인 기능을 한다.** 이야기는 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전달되는 삶의 메시지로서 지성 뿐만 아니라 정서와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글스톤은 잘 전달된 이야기는 다음과 효과를 준다고 말한다. 이야기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며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회구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며 유머 감각을 개발시켜주고, 폭넓은 사고와 풍성한 상상력을 진작시켜서 문학뿐 아니라 미술, 음악에 대한 감각을 고양시켜주고, 표현력을 확대시켜주며 정신적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고, 삶과 사람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하며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세상과 그 사람들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섬기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해 준다.<sup>34)</sup> 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30) Kraft, 14-23.

31) Zuck, 493.

32) Booth and Barton, 15.

33) 김금희, "기독교 그림책과 효과적인 유아 교육 전략," <지성과 창조> 6 (2003), 3; 서현아, "A Basic Study of Storytelling for Young Children,"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8, Vol. 1 (1987), 417-418.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에머슨도 이야기는 익숙하지 않은 진리를 묘사해 주고, 언어와 어휘력을 향상시키며,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켜 준다고 말한다.<sup>35)</sup>

실제로 앞에서 제시한 국내외의 여러 실험 연구는 storytelling이 유아의 어휘력과 창의력, 학습 준비도, 기본 생활 습관, 학습효과 및 도덕성 발달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6)</sup> 더 나아가 최근에는 storytelling이 심리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치유하는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거나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인의 관찰에서 모호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아이의 내적인 갈등, 좌절, 방어 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표현과 방법으로 이야기를 사용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7)</sup> 이점에서 부모의 storytelling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대화적 친밀감을 낳아 일종의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III. 자녀 양육에서의 Storytelling의 성경적 모델

#### 1. Storytelling의 성경적 모델

Storytelling의 모델은 성경 자체와 성경의 많은 구절들 속에서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신명기 4장 10절과 히브리서 1장 1절을 들 수 있다.<sup>38)</sup>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34) Margaret W. Eggleston, <Use of the Story in Religious Education >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36),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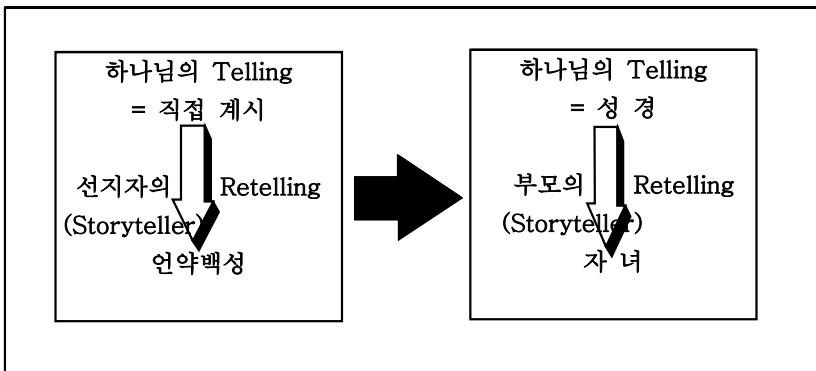
35) Laura S. Emerson, <Storytelling: the Art and the Purpos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27-32.

36) 위의 각주 10, 12 참조. 국외 연구로는 Jamice McDrury and Maxine Alterio, "Achieving Reflective Learning Using Storytelling Pathways,"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38,1 (2000), 63-73; Susan Craig, Karla Hull and et al. "Storytelling: Addressing the Literacy Needs of Diverse Learner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Vol.33, No. 5 (2001), 46-51.

37) Richard A. Gardner, <Storytelling in Psychotherapy with Children> (Northvale: Jason Aronson Inc., 1993), xiii-xiv.

38) 신명기 4장10절, "당신들이 호렙 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 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표준새번역),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표준새번역).

수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하시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Telling)을 직접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Retelling)한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Storytelling은 '하나님의 이야기'(God's story)를 '다시 이야기'(Retelling)하는 것이다.<sup>39)</sup>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명기 6장 21절은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Telling)을 따라 자녀에게 다시 이야기(Retelling) 해 주어야 할 것을 지시하신다.<sup>40)</sup> 부모의 storytelling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말씀을 그 자녀에게 다시 이야기해 준다는 점에서 '선지자적 행위'인 것이다.<sup>41)</sup> 아래의 <그림 1>은 자녀 양육을 위한 storytelling의 성경적 모델을 묘사해 준다.



<그림 1> Storytelling의 성경적 모델 (신4:10,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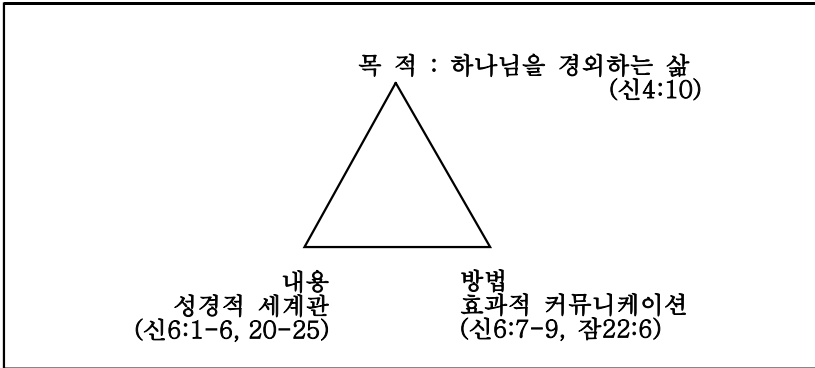
## 2. 성경적 storytelling 모델의 강조점

39) 정창균, "해석과 전달,"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강의록 (1997), 21-27. 여기서 정창균 교수는 설교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말하기'(Preaching as retelling of God's Story)라고 정의한다.

40) 신명기 6장20,21a절,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표준새번역).

41) 다만, 선지자의 Retelling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무오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반면, 부모의 retelling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는 Storyteller로, 후자는storyteller로 구분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자녀 양육을 위한 storytelling의 성경적 모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storytelling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내용(content)과 형식(form)에 대한 것이다. <그림 2>는 성경적storytelling 모델이 지향하고 있는 강조점을 묘사해 준다.



<그림 2> 성경적 Storytelling 모델의 강조점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은 storytelling이 하나님과 그 언약백성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 사이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진다.<sup>42)</sup> 그것은 곧 두 존재의 만남이고, 두 인격의 만남이고, 두 세계의 만남이고, 두 story의 만남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그의 백성 가운데로 오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그의 언약 백성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은 항상 '강력한 요구'(demanding power)를 갖고 찾아오신다.<sup>43)</sup> 그것은 언약 백성이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자신의 story에서 하나님의 Story로 들어와서 '변화'되라는 강력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는 곧 storytelling의 목적과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백성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의도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

42) 정창균, "해석과 전달,"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강의록 (1997), 4. 여기서 정창균 교수는 설교가 가능한 근거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관계를 전제하고, 설교를 하나님과 언약백성 사이의 만남의 사건으로 정의한다.

43) Ibid.

[하나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딸에게 가르치게 하려"(신4:10)는 것이다. 다시 말해storytelling의 목적은 이야기를 듣는 언약 백성의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변화에 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고, 언약의 약속들을 믿고, 언약의 요구들을 순종하고, 언약의 축복들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지속적인 변화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sup>44)</sup> 언약의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섬김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신6:4-7, 20-25).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언약 백성으로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갖는 책임이자 특권이다. 부모의Bible storytelling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다.

두번째 강조점은 storytelling의 내용(content)과 방법(form)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Storytelling을 '하나님의 이야기'(God's Story)를 '다시 이야기'(Retelling)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sup>45)</sup> 첫째, 반복과 해석이 없이는 storytelling이 있을 수 없다. Retelling에서 'Re-'는 원래의 Telling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전제하는 말이다.<sup>46)</sup> 선지자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야기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과 언약 백성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여 다시 이야기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다. 둘째, storytelling은 이야기를 듣는 대상에게 적절히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할 것을 전제한다. Retelling에서 '-telling'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적절히 전달이 안되면 telling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what is told)에 해당하는 '이야기'(story)와 그 이야기가 말해지고 있는 '방법'(how the story is told)을 가리키는 '담론'(discourse)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47)</sup> 즉 성경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내용도 되고 또한 방법도 되는 통합적인 특성을 갖는다.<sup>48)</sup> 먼저

44) Visscher, 115-116.

45) 정창균, 23. 정창균 교수는 의하면, Retelling으로서 설교는 해석과 전달이라는 두 기둥을 전제한다.

46) 이점과 관련하여 정창균 교수는 반복('재낭독')의 의미를 간과한다.

47) Jack Dean Kingsbury, <이야기 마태복음>, 권종선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14.

48) 박종석,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서사비평의 교육적 응용," <기독교교육 논총> 1 (1996), 95.

성경의 이야기는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독자는 이야기 속의 사건들에 참여하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동일시하거나 반감을 가지며 소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 이야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는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이처럼 이야기 자체가 내용도 되고 방법도 되는 통합이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 storytelling 모델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어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는지에 대한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 준다. 이처럼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해 주는 Storytelling은 기독교 교육의 문제로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sup>49)</sup>

#### IV. 자녀 양육에서의 성경적 Storytelling의 내용과 방법

##### 1. 자녀 양육에서의 storytelling의 내용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Retelling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우선,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고, 언약의 약속들을 믿고, 언약의 요구들을 순종하고, 언약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오래오래 잘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신6:1-6).

또한 Re-telling이라는 해석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일러주라고 제시해 주신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담아야 한다.

첫째 요소는 과거를 기억(remember)하라는 것이다(신4:32, 5:15, 6:21-23). 기억해야 할 내용은 곧 하나님의 창조(신4:32, "하나님이 이 땅

---

49) Ibid., 81.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타락**(신5:15a,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신6:21a,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구속**(신4:32b,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신6:21b,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완성**의 예표(신6:23,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 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로 이루어 진다. 다시 말해 **storytelling**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각각 또는 함께 엮어 냄으로써 오직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신4:35)도록 인도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의 **storytelling**은 자녀에게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요소는 하나님의 과거 이야기를 오늘 현재적으로 실재화(actualize)하라는 것이다(신4:39, 6:24). 부모는 이야기의 내용에 "오늘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 둘 것"(신4:39a)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6:24)신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사건을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삶에 연결시켜(relate) 순종으로 현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storytelling**은 '과거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인도하고, '그때 거기'(there and then)와 '지금 여기'(here and now)를 연결시켜 준다. 따라서 부모의 **storytelling**은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적 삶의 양식을 개발하고 습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요소는 미래를 소망하게(vision) 하는 것이다(신4:40, 6:25).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 할 때에는 언제나 미래의 축복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신4:40). 즉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자녀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응답하는 제자로서 자신의 구원을 책임있게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sup>50)</sup> 따라서 부모의 **storytelling**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과 미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응답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요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날마다 다시 이야기해 주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모든 것, 현재 행하시는 모든 것, 또 미래에 행하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확고한 욕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sup>51)</sup>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창18:19, 표준새번역). 이것이 자녀 양육을 위한 storytelling의 내용이자 동시에 그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 2. 자녀 양육에서의 storytelling의 방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언약백성과 커뮤니케이션 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양육을 위한 storytelling의 방법을 논의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야기 형식 자체가 갖고 있는 방법론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을 성경에 기초하여 찾아볼 것이다.

먼저 주목할 점은 성경의 이야기 형식 자체가 이야기를 말하는 방법(how the story is told)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자들은 이것을 담론(discourse)이라고 부른다.<sup>52)</sup>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storyteller를 통해 저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학 작품과 같아서, Storyteller는 저자가 본래 이야기하려는 어떤 의도를 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 배경 등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구성한다.<sup>53)</sup> 그래서 Storyteller는 실제 인물을 소개하고, 실제로 존재했던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실제 사건 즉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나 일(happening)을 묘사하며 이야기를 전개한다.<sup>54)</sup> 이러한 사실적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물들 간에 빚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이다.<sup>55)</sup> 갈등은 주로 인물들 간의 행동, 사상, 욕망 내지 의지의 불일

50) Stronks and Blomberg, 16-17.

51) Visscher, 116.

52) Kingsbury, 14.

53) 박종석, 92.

54) Rhoads, 73.

55) Rhoads, 77.

치로 인한 것이다.<sup>56)</sup> 성경 이야기에서 갈등은 대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과 인간 중심적인 관점의 충돌로 그려진다.<sup>57)</sup> 이러한 과정에서 Storyteller는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해설자로서 기능하고, 그가 갖고 있는 관점은 곧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Storyteller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가를 보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Storyteller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핵심 가치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sup>58)</sup> 이처럼 성경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적 형식, 곧 사건을 중심으로 발단-전개-갈등-절정-대단원 등으로 전개되는 순서(plot), 등장 인물들이 가진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 그리고 갈등의 해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가치와 의도는 그 자체로서 이야기의 의미와 방향을 이끌어 줄 뿐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storyteller로서 부모는 이러한 이야기의 형식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부모는 이야기를 들려 주기 위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선행해야 한다. 성경 해석을 위해 부모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준비하고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특히 눈을 열어 주셔서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모 자신과 자녀의 삶이 변화되는 메시지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close reading). 부모는 먼저 자신이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경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하나는 본문에 기초하여 등장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 또한 보다 생동감있는 이해와 표현을 위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속에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지, 특히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등장 인물이 느낀 감정과 갈등 상황에 빠

56) Laurence Perrine, <Story and Structure, 3rded.> (No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70), 58.

57) Rhoads, 44-45.

58) Jamice McDrury and Maxine Alterio, "Achieving Reflective Learning Using Storytelling Pathways,"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38,1 (2000): 64.

저보는 과정은 성경 이야기의 해석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생동감 있는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sup>59)</sup> 그 다음에는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자세히 읽고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 과정을 통해 성경의 Storyteller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혹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 과정을 통해 부모는 성경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고, 또한 성경 이야기가 구성되어진 방식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도 생동감있는 표현으로 전달하는 준비를 하게 된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 형식과 그것을 위한 관찰 및 해석 과정을 간과한 채 너무 쉽게 이야기의 영적, 도덕적 의미만을 추출해 내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성경 이야기가 갖는 본래의 역동성과 흥미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절히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 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지침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부모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수준을 고려해서 storytelling을 해야 한다. 델리취는 잠언 22장 6절에 대한 주석에서 교훈의 방식이 아이의 연령과 특성에 일치해야 한다고 말한다.<sup>60)</sup> 이 말은 아이의 영적, 도덕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심미적, 신체적 발달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가르쳐야 할 것을 의미한다.<sup>61)</sup> 효과적인 storytelling과 관련하여 동화 구연가들은 이야기를 할 때 아이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한다.<sup>62)</sup> 하나는 아이에 맞게 이야기를 각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언어와 몸짓, 손질을 통한 구연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 성경의 용어는 아이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 주기 위해서는 읽는 언어가 아닌 구연 언어로 쉽고 흥미있게 각색될 필요가 있다.<sup>63)</sup> 또한 성경 이야기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생동감있게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해설을 해주거나 행간에 가려진 부분을 보충해 줄 필요도 있다.<sup>64)</sup> 그

59) 방은정, 40.

60) Franz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verbs of Solomon, Vol.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0), 86-87.

61) Robert Koole and et al., <Loving, Living and Learning: A Kindergarten Resource> (Langley: SCSBC, 1999), 10-11.

62)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동화 구연을 위한 이론적 이야기" 참조. <http://www.mammy.or.kr>. 이것은 동화 구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다.

63) 방은정, 67.

64) Ibid., 66-67.

리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성경 내용에 맞는 노래를 선정하여 함께 부른다거나 전문가에 의해 고증된 그림을 선별하여 함께 감상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자녀가 성경 이야기를 풍부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sup>65)</sup> 요컨대 아무리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자녀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retelling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부모는 storytelling을 위한 적절한 때를 포착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신6:7). 특히 자녀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혹은 자녀들이 질문을 할 때가 바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 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다(출12:26; 신6:20).<sup>66)</sup>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요청할 때 여러가지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다(마18:21-35; 눅11:1-8).<sup>67)</sup> 뿐만 아니라 부모는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따로 계획해서 실천해야 한다.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지 가족 예배 시간은 이야기를 들려 주기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sup>68)</sup>

셋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까이 해야 한다(신6:6).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상은 일차적으로 부모들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sup>69)</sup>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습관은 자녀들의 신앙적 발달과 습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sup>70)</sup> 결국 배움이란 신앙과 학습이 함께 어우러져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인 가정 공동체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71)</sup>

65) Ibid., 41-42.

66) Harper, 72-73.

67) Zuck, 522-523.

68) Susan Schaeffer Macaulay, <라브리의 가정교육: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박경옥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124.

69) 박진경, 47.

70) Harper, 71.

71) Robert Koole, <For the Love of Your Child, revised edition> (Langley: SCSBC, 2002), 3.

## V. 결 론

본 연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 하여금 그 자녀를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자는 그 매개로서 Bible storytelling을 제안하였으며 문헌 연구를 통해 이러한 storytelling이 성경적 전거를 갖고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 또한 성경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Storytelling은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storytelling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둘째, storytelling은 우리 삶을 형성시켜 주어야 할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 셋째, storytelling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자녀에게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둘째로 성경은 자녀 양육을 위한 storytelling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부모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준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Storytelling은 '하나님의 이야기'(God's story)를 '다시 이야기'(Retelling)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Telling)을 언약 백성에게 이야기(Retelling)하신 것처럼, 부모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storytelling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고, 언약의 약속들을 믿고, 언약의 요구들을 순종하고, 언약의 축복들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변화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내용도 되고 또한 방법도 되는 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에 직면하게 한다.

셋째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storytelling의 내용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오래오래 잘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신6:1-6)는 말씀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부모는 날마다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모든 것, 현재 행하시는 모든 것, 또 미래에 행하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

넷째로 성경은 storytelling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 자체가 제시하는 형식과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지침에서 비롯된다. 즉 storyteller로서 부모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꼼꼼한 관찰과 주의 깊은 해석 과정을 통해 성경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경 이야기가 구성되어진 방식을 따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전달하려고 힘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이야기를 듣는 자녀의 본성과 수준을 고려하고, 적절한 때를 포착하여 이야기 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성경적 storytelling의 모델과 그 적용은 자녀를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있는 응답으로서 더 효과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순종의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자녀 양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는 늘 완전하지 않고 실패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72)</sup> 다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게' 자라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의 복으로 누리게 될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우리의 아들딸에게 가르치어(신4:10)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옥. "영어동화를 활용한 역할놀이 수업모형 개발: 초등학교 4학년 재량활동을 중심으로." <English Linguistic Science> Vol.8, No.1 (2002).
- 강환근. "이야기식 설교의 성서적 근거와 그 모델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김금희. "기독교 그림책과 효과적인 유아 교육 전략." <지성과 창조> 6 (2003).
- 김기현. "명제 신학 vs. 이야기 신학: 명제에 대한 비판." <복음과 상황>

72) 박진경, 210.

125 (2000, 5): 80-84.

김춘화. "'동화듣고 전달하기'가 유아의 어휘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Vol.9, No.2 (2000).

박종석.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서사비평의 교육적 응용." <기독교교육논총> 1 (1996): 77-96.

박진경.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부산: CUP, 1995.

방은정. "유 원감의 성경이야기 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동화 구연을 위한 이론적 이야기." 참조. <http://www.mammy.or.kr>.

서현아. "A Basic Study of Storytelling for Young Children." <부산산업대학교 논문집> 8, Vol. 1 (1987): 417-424.

선우윤미. "영어동화구연 기법과 시청각 교수매체 기법이 아동들의 흥미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English Linguistic Science>. Vol.6, No.1 (2000).

선우윤미. "유치원에서의 영어지도를 위한 Storytelling 활용 방안." <English Linguistic Science>. Vol.4, No.1 (2000).

신귀옥. "초등학교에서 Storytelling을 활용한 영어지도." <English Linguistic Science>. Vol.5, No.1 (2000).

신효영. 방은령.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유치원 어린이의 말하기 학습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Vol.5, No.2 (2002).

안성근. "이야기체 설교의 이론과 방법론 연구."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세계와 삶에 대한 성경적 조망>. 서울: CUP, 1999.

오혜준.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영어동화구연 기법과 다시 말하기 기법이 초등학교생들의 내용 이해와 흥미에 미치는 효과" <English Linguistic Science>. Vol.7, No.1 (2001).

유승혜. "영어동화구연 기법이 초등영어 듣기 학습에 미치는 효과 연구." <English Linguistic Science>. Vol.6, No.1 (2000);

이의신. "이야기식 설교의 실제적인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이재희.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의 이야기 분석과 활용."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Vol.4, No.1 (1996): 389-403.

이정우. "이야기식 설교의 성경적 기초와 그 이론에 관한 연구." 합동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장현주. "동화구연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Vol.9, No.1 (2000): 83-93.



- 정창균. "해석과 전달."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강의록. 1997.
- 조신영. "21세기의 설교의 한 대안으로서 이야기 설교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진호석. "이야기식 설교 형태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하경화. "동화듣기 경험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Vol.11, No.1 (2002): 161-172.
- 하미숙.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동화구연과 동화활동이 유아의 동화 기억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Vol.5, No.2 (1996): 161-178.
- 홍경선. "초등 영어 이야기 지도 방법." <초등교육연구>. Vol.4, No.1 (1999): 105-124.
- Booth, David and Barton, Bob. <Story Works: How Teachers Can Use Shared Stories in the New Curriculum>. Markham: Pembroke Publishers, 2000.
- Craig, Susan. Hull, Karla and et al. "Storytelling: Addressing the Literacy Needs of Diverse Learners."<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Vol.33, No. 5 (2001): 46-51.
- Delitzsch, Franz.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verbs of Solomon, Vol.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0.
- Eggleston, Margaret W. <Use of the Story in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36.
- Emerson, Laura S. <Storytelling: the Art and the Purpos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 Gardner, Richard A. <Storytelling in Psychotherapy with Children>. Northvale: Jason Aronson Inc., 1993.
- Harper, Norman E.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기독교교육>.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 Kingsbury, Jack Dean. <이야기 마태복음>. 권종선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 Koole, Robert and et al. <Loving, Living and Learning: A Kindergarten Resource>. Langley: SCSBC, 1999.
- Koole, Robert. <For the Love of Your Child>. revised edition. Langley: SCSBC, 2002.
- Kraft, Charles H.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revised edition>. Maryknoll: Orbis Books, 1999.
- Limburg, James. <Old Stories for a New Time>. Alanta: John Knox Press, 1983.
- Long, Thomas G. <Preaching and the Literary Forms of the Bible>.

-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Macaulay, Susan Schaeffer. <라브리의 가정교육: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박경옥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 McDrury, Jamice and Alterio, Maxine. "Achieving Reflective Learning Using Storytelling Pathways."<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38,1 (2000): 63-73.
- Perrine, Laurence. <Story and Structure. 3rded.> No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70.
- Rhoads, David. Dewey, Joanna and Michie, Donald.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2n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 Schwartz, Susan and Bone, Maxine. <Retelling, Relating, Reflecting: Beyond the 3 R's>. Toronto: Irwin Publishing, 1995.
- Stronks, Gloria G. and Blomberg, Doug. <A Vision with a Task: Christian Schooling for Responsive Discipleship>.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 Van Brummelen, Harro.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2nd ed.> Colorado Springs: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2002.
- Visscher, James. <I Belong: A Course of Stud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 The Teacher's Lesson Book>. Winnipeg, Premier Publishing, 1988.
- Westermann, Claus. <Elements of Old Testament Theology>.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Wolters, Albert M.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1992.
- Zuck, Roy B. <예수님의 티칭스타일>. 박경환, 서장국 공역. 서울: 디모데, 1995.

---

**이부형** 목사

연세대 경제학과(B.A.), 합동신학대학원(M.Div)에서 공부하고, 일산 새하늘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하다가 2002년부터 밴쿠버기독교세계관 대학원(VIEW)에서 M.A 과정 수학 중이다.